

광주형 태양광 RE100 기업 1호는 GGM ‘캐스퍼’

GGM 인근 농지에 20MW급 태양광단지 조성 에너지 선순환 시스템 도입에 민관협력형 태양광 설비 구축...REC 거래로 수익 창출도

광주시가 구축을 추진하는 광주형 RE100체계의 골자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자족형 에너지 선순환 시스템이다.

RE100에서 생산된 전력의 1호 공급처는 광주 글로벌모터스(GGM)다. 광주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GGM에서 캐스퍼를 생산해 유럽과 일본 등지를 공략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로 GGM 가동=광주시는 GGM 인근인 광주시 광산구 동호동 일대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전력에너지는 캐스퍼를 생산하는 GGM에 공급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형 RE100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RE100 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에너지사업과 내에 사업단을 꾸리고 광주 시가후에너지지원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지원인력을 사업단 파견받는 방식이다.

사업단은 광주형 RE100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산단·공공RE100 세부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사업은 광주도시공사, 광주시가후에너지지원, GGM, 인근 농지소유주 등이 주체로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GGM 인근 농지에 20MW급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 19만 5000㎡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인근 농지를 부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완료에만 2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단계로는 분산 에너지 기반 전력 계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초광역 협력 태양광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조성 = 광주시는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단위 에너지 시스템인 분산에너지 특구인 ‘광주형 RE100’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광주도시공사, 한전KDN, 민간사업자 등이 주

체로 나서 광주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광주지역 산업단지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비 사업과 민간 펀딩을 통해 첨단연구개발 특구와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에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하고 산단 입주 기업에 RE100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산단이 경우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기업들이 입주해 전기도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분산에너지 특구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지역별 편차와 발전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수요 반응, 에너지 저장기술(ESS), 발전시설의 통합관리 등이 필수다.

시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전기도 전기도 전력으로 결정할 수 있게 ESS전력거래 규제 자유 특구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전력거래 등도 준비중이다.

또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수도 도심 태양광 확산 = 광주시는 광주형 RE100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내에 공공수도 태양광설비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시도시공사를 통해 2032년까지 도심내 태양광설비를 총 30.6MW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관협력형 태양광설비 확산을 통해 기업들의 전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태양광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량에 가중치를 적용해 발급되는 인증서인 태양광 REC를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REC거래로 수익을 올리고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지역 저류지 등 빛을 저장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유후부지나 빈집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도 추진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하며 참석 유가족들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고개숙인 대통령...“정부 책임 다하지 못해 사죄”

제주항공 등 ‘4대 참사’ 유가족들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

세월호·제주항공·이태원·오송지하차도 등 이른바 ‘4대 참사’ 유가족들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12·29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50명을 비롯한 4대 참사 유가족 200여명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주제로 열린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들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개 유가족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사고 진상규명,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2·29 제주항공 유가족협의회는 경우 다른 참사와 달리 참사 관련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국토부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조사 기구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켜 조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다시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50여명을 대상으로 사고 여객기 엔진 조사 결과에 대한 유가족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수뇌부 부당이득 369억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 조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수뇌부의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욱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쟁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 회장 측은 17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시기 회장이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에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태 기자 yjyou@kwangju.co.kr

해병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위 ‘VIP 격노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고와 선배로, 윤 전 대

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당시엔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었다.

이 회의는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안보실) 회의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며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사단장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다. 그는 초동조사 결과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특검은 최근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양윤중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을 차례로 불러 회의 상황을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인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